

InSEA 2017 8.7 - 11 Mon. Fri.

EXCO, DAEGU, KOREA

| Spirit ∞ Art ∞ Digital |

학술대회 주제

Home > Congress Theme

대주제	Spirit ∞ Art ∞ Digital
소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을 통한 인간에 강화하기 (Fostering Humanity through Arts): 어떻게 미술이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가.· 다양성에 관한 그림 (Drawing on Diversity): 사회 참여적 미술 교육이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 (Living Digital Space):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의 경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미래 프로비저닝 (Envisioning the Future): 미술 교육이 어떻게 제 4 차 신시대를 맞을 준비를 갖추는가.

지금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다가움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지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로 시작된 유례없는 변화의 속도와 혁신의 범위는 쉽게 가능할 수조차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도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육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었다. 수많은 국가의 정부, 기관 혹은 개인이 내놓은 정책과 안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우리 학생들은 탄생의 순간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둘러 쌓여 이를 사용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의 사고 및 학습 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프렌스키(Presnsky)(2001)가 이러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일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모두 디지털 언어의 원어민이며, 우리와 같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면, 예술 수업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난관과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가? 디지털 기술의 도래는 예술 교육과 그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InSEA(국제미술교육회)에서 디지털 이슈를 다루는 일은 처음도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2002년 뉴욕 의회 이후 최소 약 10년 동안, 디지털이라는 이슈는 미디어, 신기술, 가상 예술공간 등과 같은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디지털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뿐 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의 디지털 급성장은 다양한 의미와 해석, 가능성과 문제, 희망과 우리의 예측을 넘어선 불안감을 낳고 있다. 예술 교육의 가능성과 초연결(hyper connectedness)은 어디로

InSEA 2017 8.7 - 11 Mon. Fri.

EXCO, DAEGU, KOREA

| Spirit ∞ Art ∞ Digital |

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술 교육에서 그러한 첨단 기술을 시대의 축복으로 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디지털로 인해 어떤 문제와 장애가 발생되었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은 현대 예술과 첨단 기술에 능통한 예술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이 지닌 가능성은 거대한 변화와 함께 교육의 이데올로기를 해체, 재구축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디지털은 예술 교육의 정신적인(Spirituality)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초래하고 있다. 예술 교육에서 디지털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되돌아 보았을 때, 디지털은 테크놀로지, 미래 역량,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 등의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교육에 대한 자본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학생 및 역량이 자본주의적 낚시망의 측면에서 이해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교육은 목적이 아닌 수단, 정신과 인간성이 아닌 자본의 원천으로 다뤄지기 쉽다.

이를 유념한다면, 디지털과 예술 교육의 관계는 단순히 방법론 혹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정신과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디지털로 물든 예술 교육은 어떠한 가능성과 문제를 만드는가? 예술 교육은 디지털을 가지고 어떠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예술 교육의 문맥에서 정신(spirituality)이 차지하는 위치는 디지털의 어디 즈음인가? "Spirit(정신)", "Art(예술)", "Digital(디지털)"과 같은 용어를 염두에 두었을 때, 공존에 대한 담화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예술 교육의 생존을 위한 중요 공식을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